

IV. 발해의 정치 · 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
2. 지방 · 군사제도
3. 사회 · 경제구조

IV. 발해의 정치 · 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

1) 조직의 정비과정과 성격

발해의 국가조직은 2대 武王 大武藝代(719~737)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3대 文王 大欽茂代(737~793)에 완비되어, 그 이후 10대 宣王 大仁秀代(818~830)와 13대 大玄錫代(871~894?)에 완성되었다.

발해를 건국한 高王(698~719) 大祚榮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날래고 용감하며 군사를 잘 부렸으나, 정치에 있어서는 조직을 정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이 때는 내정의 안정과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무왕은 안으로 국가의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특히 당시는 주변의 여러 부락들이 발해에 복속되어, 정복을 위한 조직이 일정한 수준으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점은 《新唐書》渤海傳에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武藝가 서자 영토를 개척 · 확대하여 東北의 여러 異民族들이 두려워서 이에 臣服하였다”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무왕의 뒤를 이은 문왕도 安祿山の 亂(755~763)을 계기로 이른바 小高句麗로 불리기도 하는 요동지역을 지배하에 넣는 등 대외 발전에 힘썼다. 그러나 당시는 수도를 2차례나 옮길 정도로 내정에 힘을 더 기울인 시기였다. 문왕은 수도를 中京 顯德府에서 上京 龍泉府로 옮겼다가, 다시 東京 龍原府로 옮겼다. 그런데 문왕대에 이렇게 수도를 자주 옮겼던 것은 대내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에 비로소 발해의 정치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편 문왕대에 발해는 당으로부터 ‘渤海郡’이 아닌 ‘渤海國’으로 인정받았다. 왕에 대한 책봉 작위가 ‘渤海郡王’이 아닌 ‘渤海國王’으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당나라가 ‘발해국’을 ‘발해군’으로 불렀던 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것이었으나, 당이 이처럼 늦게나마 태도를 바꾼 것은 安史의 亂 등으로 인하여 궁지에 몰린 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였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이유는 발해가 건국 이후 꾸준히 국력을 신장시켜 왔던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해의 국제적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문왕 이후에는 여러 왕이 즉위하자마자 곧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발해의 귀족층이었던 ‘國人’들의 권력쟁탈전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¹⁾ 그러다가 발해는 고왕의 동생인 大野勃의 4世孫으로 알려지고 있는 10대 선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왕권이 안정되고 중흥기를 맞게 되었다. 이 때부터 海北의 諸部가 토벌되어 영토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전국을 5京, 15府, 62州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통치체제를 완성시킨 시기도 이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발해는 13대 대현석대에는 ‘海東盛國’이란 칭호를 듣기까지 이르렀다.²⁾

발해의 중앙정치체도는 專制的이고 자주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지만, 발해왕이 長子相續制를 시행하고 있었다든지, 발해가 고왕 때부터 줄곧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발해의 왕위계승은 왕자가 없다면지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자상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東宮制度가 성립되어 있어서 장자가 동궁(태자)으로 책봉되어 왕위계승권을 확보하곤 하였다.³⁾ 발해왕이 당으로부터 발해군왕 또는 발해국왕으로, 그 장자가 桂婁郡王 등으로 책봉되고, 이 양자가 모두 세습적으로 계승되어 간 사실도 동궁제도가 있었

1) 酒寄雅志, 〈渤海王權の一考察—東宮制を中心として—〉(《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353쪽.

2)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3) 酒寄雅志, 앞의 글 참조.

다는 사실을 반증한다.⁴⁾ 왕위의 장자상속에는 시련이 따르기도 하였다. 가령 무왕과 그의 동생 大門藝 사이에 있었던 대외정책의 대립과, 이로 인한 대문예의 당으로의 망명, 대문예를 살해하기 위한 무왕의 자객파견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왕위계승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⁵⁾ 발해는 王弟의 왕위계승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장자 아닌 다른 왕자들의 왕위계승권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자를 동궁으로 책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자는 副王으로서 다른 일반 왕자와 구별되었고 또한 일정한 정치적 권력도 행사하였다.⁶⁾ 발해가 장자상속제를 시행하였다는 것은 왕권이 전제적이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발해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자주적이었던 점이다. 기본적으로 발해는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당나라에 朝貢使를 보내는 등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발해는 자주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전근대의 정치적 자주성은 연호사용 여부에서 일정하게 드러난다. 발해는 연호나 시호를 정함에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하였음이 중국측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玄宗 開元 7年(719)에 祚榮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諡號를 高王이라 하였다. 그의 아들 武藝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으며, 또 사사로이 연호를 仁安으로 고쳤다. …무예가 죽자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武王이라 하였다. …欽茂가 죽으니 사사로이 시호를 文王이라 하였다(《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발해 정치의 자주성은 이처럼 중국측에서도 ‘사사로이’ 결정하였다고 하는 연호와 시호의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해는 고왕 대조영이 ‘天統’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이래⁷⁾, 대체로 모든 왕들이 하나의 연호를 사용하는

4)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5) 酒寄雅志, 앞의 글, 358~359쪽.

6) 이와 흡사한 사실이 고구려에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써 발해의 이 제도는 고구려의 그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2, 352쪽 및 酒寄雅志, 위의 글, 359~364쪽 참조).

7) 발해 高王의 연호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僞書」

一世一元의⁸⁾ 원칙이 지켜졌다. 즉 전하는 연호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문왕 때에는 大興,⁹⁾ 成王代에는 中興, 康王代에는 正曆, 定王代에는 永德, 僖王代에는 朱雀, 簡王代에는 太始, 宣王代에는 建興 등과 같이 역대의 국왕들이 모두 연호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해왕들이 각기 연호를 고쳐 쓴 것은 대흥이나 중흥, 태시, 건흥 등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개혁의 상징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선왕의 뒤를 이은 大彝震도 咸和라는 연호를 세웠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에는 국왕의 연호사용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시호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연호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발해 정치의 진제성과 자주성은 발해왕이 황제의 칭호인 ‘皇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문왕의 둘째 딸인 貞惠公主와 넷째 딸인 貞孝公主의 묘지를 보면 문왕을 ‘황상’ 및 ‘大王’ 등으로 부르고 있다.¹⁰⁾ 이것은 곧 발해가 시호를 왕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조정에서의 호칭은 황제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나타낸다. 황제라는 호칭이 문왕대에만 국한하여 사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발해 조정에서 통치자를 황제라고 호칭하였던 사실은 발해가 자주적인 왕조였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발해국의 자주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발해왕이 당나라로부터 ‘左驍衛大將軍’이니 ‘忽汗州都督’이니 하는 관직과 함께 ‘渤海郡王’이나 ‘발해국왕’으로 책봉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중국학계에서는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동아시아에서 책봉은 외교적 승인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지, 결코 이것이 당과

논쟁이 있는 《桓檀古記》에 실린 《太白逸史》(조선 중종 때의 李栢 撰으로 알려짐)에 大祚榮代의 연호가 ‘天統’이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 ‘천통’이란 연호는 魚允迪의 《東史年表》(1915), 304쪽 및 震檀學會의 《韓國史年表》(1959), 90쪽에도 채용되고 있다.

8)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350쪽.

9) 吉林 敦化的 六頂山古墳에서 발견된 貞惠公主墓誌는 文王이 大興 이외에 寶曆이란 연호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말년에는 다시 大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閻萬章, 〈‘貞惠公主墓碑’의 연구〉, 《考古學報》1956-2; 崔茂藏譯, 〈渤海 ‘貞惠公主墓碑’의 연구〉, 《高句麗·渤海文化》, 集文堂, 1982, 참조).

10)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一潮閣, 1995), 101~105쪽.

주변국의 외교적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당의 인접국에 대한 책봉은 당의 일방적인 외교행위였다. 물론 발해는 당의 책봉을 왕실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의 책봉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당의 책봉이 곧 발해왕실의 비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발해는 책봉을 받은 뒤에도 자국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여겼을 경우에는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기도 하였다. 대문예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고 있던 당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예이다.

한편 발해의 자주성과 관련하여 당에 대한 ‘朝貢’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즉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200여 년 동안 1~3년 사이를 두고 당에 조공하는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한다.¹¹⁾ 이를 근거로 하여 중국학계에서는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 내지 ‘藩屬國’의 봉건신하로서 당에 조공하였다고 주장한다.¹²⁾ 그러나 고대 동아시아사에서 조공이 갖는 의미는 ‘官營貿易’이나 ‘교류’ 및 외교적 승인을 위한 절차였다는¹³⁾ 점을 감안한다면, 조공의 유무를 들어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 내지 번속국이었다고 하는 주장은 역사적 실상과 거리가 먼 것이다.

2) 조직의 내용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은¹⁴⁾ 3省 6部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11) 王承禮 著, 宋基豪 譯, 《발해의 역사》(翰林大 아시아文化研究所, 1987), 159~165쪽 「발해와 당 왕조의 왕래 일람표」 참조.

12) 王承禮 著, 宋基豪 譯, 위의 책, 165쪽.

13)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對하여—淸海鎮大使 張保臯를 主로 하여—〉(《震檀學報》1, 1934).

申滢植, 〈羅·唐間의 朝貢에 대하여〉(《歷史教育》10, 1967).

李春植, 〈朝貢의 起源과 그 意味—先秦時代를 중심으로—〉(《中國學報》10, 1969).

14)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金毓黻, 〈職官考〉(《渤海國志長編》 권 15, 華文書局, 1934).

鳥山喜一, 〈渤海王國의 制度と文化〉(《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74~75쪽.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王承禮 著, 宋基豪 譯, 앞의 책, 141~154쪽.

모범은 당나라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해는 당나라의 3성 6부 및 1臺·9寺·5監·3省을 받아들여 규모를 축소하여 3성 6부 및 1대·7시·1院·1감·1局을 두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6부 아래에 24司를 두었던 데 비하여 발해에서는 12사를 두었다. 한편 3성 6부의 명칭은 발해의 그것과 당의 그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최고 권력도 당나라와 같이 中書省이 아니라 政堂省에서 나왔다. 이것은 발해가 당의 제도를 수용하되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형하여 운영해 나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발해의 3성은 정당성·宣詔省·中臺省이었고 이 가운데 정당성이 집행기구로써 가장 권한이 컸다. 3성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관제나 장관 및 당의 3성 6부의 기능을 통하여 발해의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당성은 大內相을 장관으로 하는 행정기구로서 당나라의 尚書省에 해당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에서는 통과된 政令을 집행하는 상서성이 중서성과 門下省에 의하여 통괄되는 상황이었지만, 발해에서는 반대로 정당성이 오히려 선조성과 중대성을 통괄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선조성과 중대성의 장관인 左相과 右相 위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내상을 3성의 관리들로 구성된 合坐機關의 최고 의장 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⁵⁾ 그런데 대내상의 ‘內’에서 보듯 대내상은 국왕과 가까운 장관이었다. 그렇다면 정당성은 국왕의 정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최고 권력기구였음에 틀림없었던 것 같다. 즉 발해의 정치기구는 전제왕권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내상 아래에는 左司政, 右司政 각 1인씩이 있었고, 그 밑에 左允, 右允 각 1인씩을 두고 左司, 右司의 6司를 나누어 관장하였다. 좌6사에는 忠, 仁, 義 3부가 있고 우6사에는 智, 禮, 信 3부가 있었다. 정당성은 행정의 실제적인 총괄기구이고, 정당성 소속의 충·인·의·지·예·신 6부는 구체적으로 정무를 분담하는 관서였다.

忠部(당의 吏部)는 문관관리들을 임명·파견하고 훈급을 정하고 작위를 봉

방학봉, 〈발해의 중앙행정기구에 대하여〉(《발해사연구》 5, 연변대학출판사, 1994).

15) 李丙燾,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659~660쪽.

하며, 관리들의 성적을 考査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6부의 최고 위치에 있었다. 장관은 卿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少卿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시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忠部로 正司인데 郎中 1명이 책임을 맡고 員外郎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爵部로 支司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仁部(당의 戶部)는 토지·돈·양식·호구·조세 등을 장악하여 관리하는 곳으로서 발해 재무행정의 최고기구였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仁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倉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義部(당의 禮部)는 의례·제사·과거·학교·대외관계 등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義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膳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智部(당의 兵部)는 무관의 임명과 피면·군대와 군마·무기·군량·왕궁의 보위·성새·산천의 지도 등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발해 군사행정의 최고기구였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智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戎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禮部(당의 刑部)는 법률·형법·감옥·심판을 장악하고 관리하던 부서로 발해의 최고 법률기구이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禮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計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信部(당의 工部)는 교통·水利·屯田·건축·산림·강과 하천·관청수공업·工匠 등의 사무를 장악하고 관리하는 행정부서로 6부의 마지막에 위치하였다. 장관은 경으로 1명을 두었고 그 다음은 소경 1명을 두었다. 소속된 사

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信部로 정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水部로 지사인데 낭중 1명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명을 두었다.

이같이 발해의 6부제가 당의 6부에서 모범을 취하면서도 그 명칭은 실제의 관장업무를 나타내는 용어 대신에 유교도덕을 나타내는 충·인·의·지·예·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관부를 忠部라 하여 인사에서 국왕에 대한 충을 중요시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은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발해정치의 전제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발해의 宣詔省이 무슨 일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의 門下省이 世論을 대표하여 신하의 의견을 국왕에게 알리며, 때로는 조칙을 반박하기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발해의 선조성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선조성은 일상적으로 왕에게 시종하여 그 행동의 예를 돕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그 과오에 대하여 잘못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임무(諷諫)도 맡고 있었다. 장관은 左相으로서 그 정원은 1명이고 지위는 대내상의 다음가는 제2위였다. 좌상의 밑에서 그를 돕는 대신급 관직으로 左平章事, 侍中이 각각 1명씩 있었다. 또 그 밑으로는 左常侍, 諫議 등이 있는데 그 정원은 알 수 없다.

中臺省(당의 中書省)은 政令을 기초하고 제정하며 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장관은 右相인데 그 정원은 1명이고 정부 내부에서 그 지위는 좌상의 다음가는 제3위였다. 우상의 밑에서 그를 돕는 대신급 관직으로 右平章事 1명, 內史 1명이 있었다. 또 그 밑으로는 詔誥舍人 등의 관직이 있는데 그 정원은 알 수 없고 직무는 조칙이나 명령의 초고들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었다.

발해는 3성 6부외에 1대·7시·1원·1감·1국의 행정조직이 있었다.

中正臺(당의 御史臺)는 발해의 감찰기구로서 장관은 大中正이고 정원은 1명이며 그의 지위는 司正의 아래에 있었다. 대중정의 밑에는 少正 1명이 있었다.

殿中寺(당의 殿中省)는 국왕의 궁정생활 즉 음식·옷·주거·행차시의 수레 등을 담당하였다. 장관은 大令 1명이고 그 다음은 少令 1명이었다.

宗屬寺(당의 宗正寺)는 왕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장관은 대령 1명이고 그 다음은 소령 1명이었다.

文籍院(당의 秘書省)은 經籍·도서를 관리하고 비문·축문·제문 등을 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장관은 監 1명이고 그 다음에 少監 1명이 있었다.

太常寺(당과 이름이 같음)는 예의·제사를 관장하였다. 장관은 卿 1명이었다.

司賓寺(당의 鴻臚寺)는 외국사절을 접대하는 관청이었다. 그 장관은 경 1명이고 그 밑에 소경 1명이 있었다.

司藏寺(당의 太府司)는 외국무역을 위한 직물을 비롯한 각종 재부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장관은 승 1명이고 그 밑에 丞 1명이 있었다.

司膳寺(당의 光祿寺)는 궁중 酒禮·膳食을 관할하는 관청이었다. 그 장관은 영 1명이고 그 밑에 승 1명이 있었다.

太農寺(당의 司農寺)는 전국의 창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관청이었다. 그 장관은 경 1명이고 그 밑에 소경 1명이 있었다.

胄子監(당의 國子監)은 귀족들의 자제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었다. 그 장관은 감 1명이고 그 밑에 長 1명이 있었다.

巷伯局(당의 內侍省)은 왕실 후궁의 명령전달·호위·일상생활의 시중 등을 하는 환관들의 관청이었다. 거기에는 常侍 이하의 벼슬들이 있었다. 이로써 발해왕실에는 시중드는 기구와 환관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韓圭哲〉

2. 지방·군사제도

1) 지방제도

발해 조정은 광대한 영토를 유지·통치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조직과 함께 효과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

분 차지하고 오히려 동북쪽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있었다. 발해의 영역은 宣王代(818~830)에 가장 넓었다고 하는데 사방 5천 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대의 영토가 선으로 명확하게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본다면 남쪽은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이었고, 서쪽은 遼陽·瀋陽이 있는 遼東半島에 미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북쪽은 대체로 東流하는 송화강이 경계였을 것으로 보이며, 흑룡강과 우수리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거쳐 동쪽으로 연해주 남단에 뻗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 이러한 영토 안에 설치되었던 행정도시들이 바로 5京·15府·62州였다. 그리고 주 아래에는 100여 개의 縣이 있어, 府→州→縣의 3단계 행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5경은 上京(龍泉府)·中京(顯德府)·東京(龍原府)·南京(南海府)·西京(鴨綠府)을 말한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상경이 黑龍江省 寧安縣의 東京城 渤海鎮에 있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중경은 吉林省 和龍縣의 西古城子, 동경은 길림성 琿春의 八連城(半拉城)으로, 남경은 咸南 北靑, 서경은 길림성의 臨江市說이 유력하다.²⁾ 國都는 시대에 따라서 이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경이 오랜 동안 국도로 유지되었다. 상경지인 동경성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상경은 당의 장안성을 모범으로 하여 발해 나름의 방식을 가미하여³⁾ 축조한 대규모 평지 도성이었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네모진 토성 안의 북쪽에 내성을 쌓고 南面하여 궁성이 잠고 있었다. 궁성 동쪽에는 군

1) 和田清, 〈渤海國地理考〉(《東洋學報》36-4, 1954).

鳥山喜一, 〈渤海王國の疆域〉(《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孫進己, 〈渤海疆域考〉(《北方論叢》1982-4).

王承禮, 〈渤海的疆域和地理〉(《黑龍江文物叢刊》1983-4).

魏國忠, 〈渤海疆域變遷考略〉(《求是學刊》1984-6).

손영중,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1·2)〉(《역사과학》1980-2, 3).

徐炳國, 〈新唐書渤海傳所在 泥河의 檢討〉(《東國史學》15·16, 1981).

채태형, 〈료동반도는 발해국의 령토〉(《역사과학》1992-1).

2) 宋基豪, 〈발해 城址의 조사와 연구〉(《韓國史論》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김중혁, 〈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조선고고연구》1990-4).

채태형, 〈발해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역사과학》1991-3).

김영성, 〈발해의 남변에 대하여〉(《발해사연구논문집》1, 1992).

3) 방학봉, 〈발해 상경용천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先史와 古代》2, 韓國古代學會, 1992).

발해의 5경 설치도



신이 즐기던 禁苑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마치 신라의 안압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궁성 앞의 중앙에는 남북으로 뚫린 朱雀大路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바둑판같이 설계된 條坊制를 실시하였다.⁴⁾ 동경으로 추정되는 혼춘의 半拉城에서도 규모는 작으나 상경과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⁵⁾ 발해의 5경은 고구려 5부의 전통을 이어받고, 신라의 5소경 및 당나라의 5경제도 등을 모방한 행정제도가 아니었던가 한다.⁶⁾

발해의 5경은 상경성만을 중심으로 한 지방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짧은 기간이나마 중경과 동경도 수도로서 행정 및 경제·군사의 기능까지 충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발해국의 수도의 천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천도가 네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 첫번째가 건국기의 舊國(길림성 敦化市)에서 중경 현덕부로 옮겼던 것이며, 다음은 문왕대인 742~755년(天寶 연간)경에 상경 용천부로 옮겨 30년 정도를 지내다가, 문왕대 貞元 연간(785~801년, 785년경)에 다시 세번째로 동경 용원부로 옮겼다. 이곳에서도 10년이 못되어 마지막으로 5대 成王 大華璵대인 793~794년경에 상경 용천부로 다시 옮겨 멸망할 때까지 약 130여 년을 지냈다.⁷⁾

한편 지방행정에 있어서 5경과 함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은 15府였다. 15부 중의 5부는 5경과 겹쳐져 있다. 15부가 지니는 특징을 일정한 종족의 거주지 단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⁸⁾ 발해의 사회구성이 이토록

4) 原田淑人, 《東京城》(東亞考古學會, 1939), 9~11쪽.

5) 鳥山喜一, 〈渤海東京考〉(《史學論集》, 1938), 42~45·52쪽.

6)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一潮閣, 1982), 359~360쪽.

7) 천도시기 및 과정에 대한 異見으로는 구국에서 바로 상경 용천부로 천도하였다는 설, 중경 현덕부의 顯州가 곧 구국이었던 견해, 그리고 구국에서 중경현덕부로 옮겼던 시기는 문왕대가 아닌 무왕대였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林相先, 〈渤海の遷都에 대한 考察〉(《清溪史學》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宋基豪, 〈발해의 초기 도읍지와 천도과정〉(《于江權允遠教授定年紀念論叢》, 1994).

방학봉, 〈발해수도의 변화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발해사연구》3, 연변대학 출판사, 1992).

다원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역 편제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아무튼 발해는 기본적으로 15부를 통하여 지방을 통제해 나갔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곳이 5경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15부 중의 몇이 외국과 통하는 교통로로써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도 또한 15부가 지니는 지방행정통치상의 중요성을 말하여 준다고 하겠다.

15부는 또한 지방통치의 중심지로서 하위의 행정구획인 62주를 거느리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주 중에는 郢州·銅州·涑州와 같이 중앙 직할의 獨奏州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는 15부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명을 받들었다. 그러므로 15부의 장관인 都督은 지방행정기구를 움직여 나가는 데 큰 구실을 하였을 것이다. 15부 밑의 62주의 장관인 刺史 혹은 그 밑의 縣의 장관인 縣丞은 모두 15부 도독의 지휘계통 아래 놓여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가장 말단에 자리잡은 촌락의 首領은 토착촌락민의 유력자가 임명되었을 것이지만, 이들 수령은 현승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을 것이다.

지방행정제도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령제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발해가 일본에 파견한 사신 가운데 전시기에 걸쳐 모두 수령이 나타나는데, 특히 후기에는 수령의 숫자가 많을 경우 65인에 달하였다. 65인이라는 숫자는 62주에 3개의 독주주를 합한 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우연한 일치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수령은 각 부·주·현에 해당하는 지역에 원래부터 있던 부락의 우두머리로서 부락의 군사·행정에 대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것은 발해 통치자가 각 지역의 풍습에 따라 해당지역을 다스리는 정책의 하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⁹⁾ 이러한 수령제도는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고 사회발전단계가 고르지 못한 발해사회에서 유용한 제도가 아니었던가 한다.

8)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361쪽.

9) 王承禮 저, 宋基豪 역, 앞의 책, 149쪽.

발해의 5경 15부 62주 및 5도

5 京	15 府	5 道	62州(60州만 기록에 남아 있음)	參 考
上 京	龍 泉 府	日 本 道 新 羅 道 朝 貢 道 營 州 道 契 丹 道	龍·湖·渤 3州	肅慎故地
中 京	顯 德 府		盧·顯·鐵·湯·榮·興 6州	
東 京	龍 原 府		慶·鹽·穆·賀 4州	濊貊故地
南 京	南 海 府		沃·晴·椒 3州	沃沮故地
西 京	鴨 渚 府		神·桓·豐·正 4州	高麗故地
	長 嶺 府		瑕·河 2州	
	扶 餘 府		扶·仙 2州	扶餘故地
	鄭 詰 府		鄭·高 2州	
	定 理 府		定·潘 2州	挹婁故地
	安 邊 府		安·瓊 2州	
	率 賓 府		華·益·建 3州	率賓故地
	東 平 府		伊·蒙·沱·黑·比 5州	拂涅故地
	鐵 利 府		廣·汾·蒲·海·義·歸 6州	鐵利故地
	懷 遠 府		達·越·懷·紀·富·美·福·邪·芝 9州	越喜故地
	安 遠 府 (獨奏州)		寧·鄆·慕·常 4州 郢·銅·涑 3州	

*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傳 참조.

2) 군사제도

발해의 군사조직에 대하여는 《신당서》발해전에 아주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즉 “그 武員으로는 左右猛賁衛·左右熊衛·左右羆衛·南左右衛·北左右衛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해의 군사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의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발해의 군사제도는 좌맹분위·우맹분위·좌옹위·우옹위·좌비위·우비위·남좌위·남우위·북좌위·북우위의 10衛制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설과,¹⁰⁾ 남좌우위와 북좌우위를 각

10) 南左右衛를 南左衛·南右衛로, 北左右衛를 北左衛·北右衛 등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나, 아니면 남좌우위와 북좌우위를 각각 하나로 볼 것이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데 전자의 견해는 金毓黻, 〈職官考〉(《渤海國志長編》 권 15, 華文書局, 1934) 및 鳥山喜一, 〈渤海王國の制度と文化〉(《東亞研究》 3-8, 1913; 《渤海史上の諸問題》), 82쪽 참조.

각 하나로 보고 8위제였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¹¹⁾ 10위제설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8위제설의 논거는 고려초에 발해가 멸망하기 직전 고려로 망명해 왔던 발해인 가운데 大審理라는 사람의 관직이 左右衛將軍이었다는¹²⁾ 데 있다. 즉 남좌우위장군 및 북좌우위장군은 하나의 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우위장군이 좌위장군과 우위장군의 겸임일 개연성도 있고 이러한 사례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발해의 군사제도는 10위제였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발해는 각 위에 대장군 1인과 장군 1인을 두는 군사조직을 갖고 있었다. 대현석시기에 일본에 파견된 발해 사신 李興晟은 우맹분위 소장이었고, 康王시기에 일본에 파견된 大昌泰는 좌옹위 郎將이었다. 이를 보면 우맹분위 장군 아래에 소장이 있었고, 좌옹위에는 낭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 멸망 직전에도 이러한 관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발해의 군사제도는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줄곧 유지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군사조직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을 이들 10위(또는 8위)가 같은 중앙군으로서 그 맡은 바 임무가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점은 잘 알 수 없다. 단지 맹분위·옹위·비위가 궁성의 宿衛를 담당하는 데 대해서, 남북의 좌우위가 각기 南衛禁兵·北衛禁兵을 관장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정도이다.¹³⁾ 이들 중앙군이 어떤 방법으로 병력을 충당했을까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없다.

당의 지방 折衝府의 군직인 果毅都尉가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발해에도 지방에 절충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¹⁴⁾ 그렇다면 발해도 당과 같은 府兵制를 실시하였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 수령의 군사적 지휘권·병역징발권을 기초로 하여 부병제가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¹⁵⁾ 그렇다면 15부의 각 부에는 折衝都尉 1인, 左右果

11)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357~358쪽.

12) 《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8년 9월 경자.

13) 金毓黻, 〈職官考〉(앞의 책).

14) 鳥山喜一, 앞의 글, 83쪽.

15) 鈴木靖民, 〈渤海の首領に關する豫備的考察〉(《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302쪽. 그러나 발해의 부병제 징집방식은 이원적으로 구성된 발해사회로서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 중앙군은 고구려계든 말갈계든간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조직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基白·李

毅都尉 각 1인, 別將 각 1인, 長史 각 1인, 兵曹參軍事 각 1인, 校尉 5인 등을 두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과의도위와 별장은 모두 절충부에 속하는 관직이므로 발해가 당의 부병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전국 각지에 절충부를 두고 10위(또는 8위) 아래에 예속시켰을 가능성도 크다.¹⁶⁾

그리고 발해의 사회구성에 있어서 수령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의 군사조직은 촌장인 수령을 지휘관으로 하고 촌락민을 兵員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조직이 촌락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촌장인 수령을 金代의 千夫長인 猛安 혹은 百夫長인 謀克의 선구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가¹⁷⁾ 이런 점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반드시 그것이 직접적인 선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촌락민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수령과 같은 존재는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단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들이 교대로 상경하여 宿衛하는 부병제에 의하여 군사적 의무를 풀여지지 않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基東, 앞의 책, 358쪽). 즉 지배층은 고구려유민이었고 피지배층은 말갈인이었던 발해는 당연히 민족적 차별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군사조직으로 이들을 징집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해의 사회구성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대체로 고구려유민 중심의 일원적 사회였다는 논리에서는 이와 같은 군사조직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35~92쪽 참조).

16) 王承禮 저, 宋基豪 역, 앞의 책, 147~1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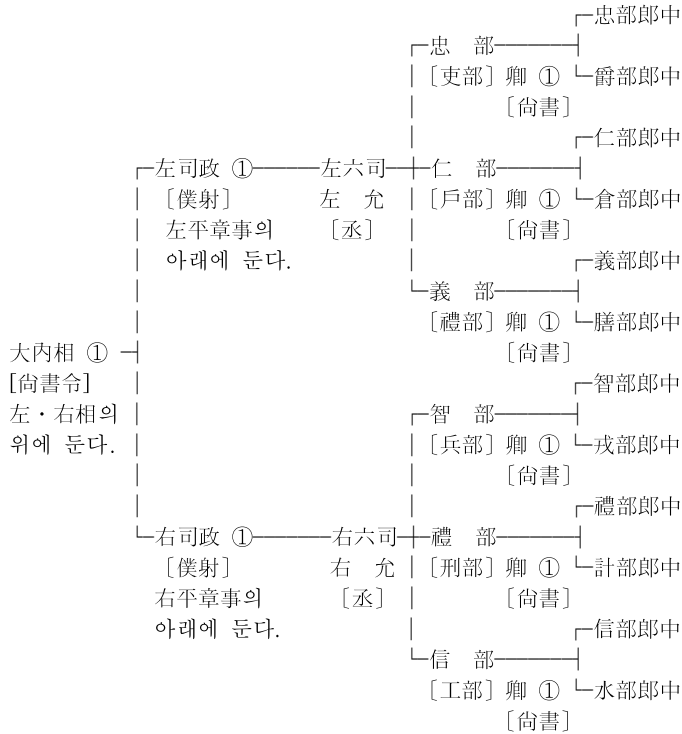
17) 金毓黻, 〈職官考〉首領(앞의 책).

발해 관제표¹⁸⁾

1. 3省 6部 ([] 는 당의 제도, 숫자는 사람수, 이하 동일)

1) 政堂省

[尙書省]



2) 宣詔省 左相 ①—左平章事—侍中—左常侍—諫議
[門下省] [侍中]

3) 中臺省 右相 ①—右平章事—內史—詔誥舍人
[中書省] [令]

2. 기타관서 (1臺, 7寺, 1院, 1監, 1局)

1) 中正臺 大中正 ①—少正
[御使臺] [御史大夫] [御史中丞]

2) 殿中寺 大令 ①—少令
[殿中省] [監] [少監]

18) 王承禮 저, 宋基豪 역, 앞의 책, 153~154쪽.

- 3) 宗 屬 寺 大令 ①—少令
[宗正寺] [卿] [少卿]
- 4) 太 常 寺 卿 ①
[太常寺] [卿]
- 5) 司 賓 寺 卿 ①
[鴻臚寺] [卿]
- 6) 大 農 寺 卿 ①
[司農寺] [卿]
- 7) 司 藏 寺 令 ①—丞
[太府寺] [卿] [少卿]
- 8) 司 膳 寺 令 ①—丞
[光祿寺] [卿] [少卿]
- 9) 文 籍 院 監 ①—少監
[秘書省] [監] [少監]
- 10) 胄 子 監 監 ①—長
[國子監] [祭酒] [司業]
- 11) 巷 伯 局 常侍 ①
[內侍省] [監]

3. 군사조직 (10衛)

- 1) 左猛賁衛 大將軍 將軍
- 2) 右猛賁衛 大將軍 將軍
- 3) 左 熊 衛 大將軍 將軍
- 4) 右 熊 衛 大將軍 將軍
- 5) 左 羆 衛 大將軍 將軍
- 6) 右 羆 衛 大將軍 將軍
- 7) 南 左 衛 大將軍 將軍
- 8) 南 右 衛 大將軍 將軍
- 9) 北 左 衛 大將軍 將軍
- 10) 北 右 衛 大將軍 將軍

4. 지방조직

府—都督, 州—刺史, 縣—丞

5. 官階 조직

品 階	1	2	3	4	5	6	7	8	9
服 飾	紫 衣			緋 衣		緋 衣		綠 衣	
	牙 笏			牙 笏		木 笏		木 笏	
	金魚袋			銀魚袋					

3. 사회 · 경제구조

1) 사회구조

(1) 신분제도

발해의 사회 신분은 왕을 비롯한 왕족, 귀족, 평민(백성), 그리고 하층민인 部曲 및 奴婢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신분을 다시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으로 구별하는 것은 姓氏의 有無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南宋의 洪皓는 《松漠紀聞》에서 발해의 王姓은 大氏이고, 유력가문의 성은 高·張·楊·寶·烏·李氏 등 불과 몇 가지밖에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부곡과 노비 등 성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그 주인을 따랐다고 하였다.¹⁾

왕족인 대씨 집단은 발해의 최고 통치계층으로서, 왕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웠다. 예를 들면 신하와 백성들이 왕을 일상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可毒夫’라 하였고, 왕에게 올리는 글에서는 ‘基下’라 하였으며, 왕의 앞에서는 ‘聖王’이라 호칭하고 그의 명령은 ‘敎’라고 하였다. 또한 왕의 아버지는 ‘老王’, 어머니는 ‘太妃’, 처는 ‘貴妃’, 맏아들은 ‘副王’이라 하고, 그 아래의 자식들은 ‘王子’라고 하였다.²⁾ 武王 때부터 역대 왕들은 독

1) 洪皓, 《松漠紀聞》 권 上, 渤海國.

《송막기문》의 기록은 姓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한 신분제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며(鈴木靖民, 〈渤海の首領制—渤海の社會と地方支配—〉, 《歴史學研究》 547, 1985; 임상선 편역,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0, 128쪽), 7세기말에서 10세기 초엽에 걸쳐 성씨를 가졌던 사람들은 발해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 볼 수 있다(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241쪽). 그리고 이 기록에서 평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들이 성이 없는 부류지만 부곡이나 노비와 같이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사회에서도 백성은 성(씨)가 없이 이름만 있었다(《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2) 《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傳.

《冊府元龜》 권 962, 外臣部, 官號.

이 밖에 발해 3대 문왕의 딸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墓誌에서 ‘公主’란 칭호도 확인되었다. 또한 副王은 太子 혹은 東宮이라고도 불렀는데, 발해의 동궁제

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사후에는 여러 가지 諡號를 달았다. 특히 〈貞惠公主墓誌〉와 〈貞孝公主墓誌〉에 의하면 文王은 재위기간중에 ‘聖人’·‘皇上’ 혹은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는 존호로 지칭되고,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한 칸을 비우는 방식으로 특수한 존경이 표시되어 있다.³⁾ 한편 발해에서는 왕위계승이 부자간의 直系嫡子繼承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적자가 없거나 재위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적자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형제계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⁴⁾

귀족 가운데 고·장·양·두·오·이씨의 성을 지닌 右姓望族들은 발해 정권에서 관직이 높고 권세가 막대한 유력가문이었다.⁵⁾ 고씨는 고구려 계통으로서 대조영집단과 함께 행동하였거나 요동지방에서 발해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예일 것이다. 장씨도 고구려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양씨는 말갈인으로 추측된다. 두씨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데 賀氏의 잘못된 가능성이 많다. 오씨도 발해 건국 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지배층의 일원으로 포함되었다. 한편 문왕 사후 大元義를 몰아내고 大華璵(成王)를 왕으로 추대한 ‘國人’의 실체도 右姓 가문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⁶⁾. 우성망족을 제외한 일

는 적어도 8세기 중엽 무렵에는 실시되었다고 한다(酒寄雅志, 〈渤海王權の一考察—東宮制を中心とし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 編, 《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임상선 편역, 앞의 책, 145~146쪽).

3) 문왕의 여러 칭호 및 존호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방학봉, 〈정효공주묘지의 ‘대왕’·‘성인’·‘황상’에 대하여〉(《발해문화연구》, 이론과 실천, 1991).

宋基豪, 〈발해 文王代의 개혁과 사회변동〉(《韓國古代史研究》6, 1993), 57~62쪽.

4) 酒寄雅志, 앞의 글(임상선 편역, 앞의 책, 142쪽).

5) 현재 알려져 있는 발해인은 유민을 포함하여 380명인데, 이 가운데 대씨가 117명, 고씨 63명, 장씨 20명, 양씨 8명, 오씨 13명, 이씨 21명, 두(賀)씨는 4명으로서 전체 발해인의 65%인 246명이 왕실과 유력귀족 가문이다(宋基豪, 《渤海의 歷史的 展開 過程과 國家 位相》,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5, 69쪽).

右姓家門의 출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宋基豪, 위의 책(1995), 69~70쪽.

白鳥庫吉, 〈渤海國に就いて〉(《史學雜誌》44-12, 1933; 임상선 편역, 앞의 책, 92쪽).

金毓黻, 《渤海國志長編》권 16, 族俗考.

金鍾圓, 〈渤海의 首領에 대하여—地方統治制度和 關聯하여—〉(《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9), 220~221쪽.

6) ‘國人’층은 8세기말 문왕을 중심으로 上京지역에 기반을 가진 세력으로서 東

만 귀족으로는 다음의 49개 성씨가 확인되고 있다.

賀·王·任·馬·馮·呂·裴·崔·已·慕·郭·木·史·辛·解·趙·劉·朱·
衛·吳·洪·林·申·夏·梁·羅·文·安·朴·胥·茹·卯·門·隱·周·列·
公·多·聿·受·智·壹·葱·古·阿·達·冒·謁·渤海(金毓黻, 《渤海國志
長編》 권 16, 族俗考).

위의 성씨는 다양한 민족과 부족이 발해국의 주민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여 준다. 왕씨는 漢族일 가능성이 많으며, 박·최씨는 신라와 관련된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茹·율·지·다·이·慕·충·공·고·아·冒·알 등의 성씨와 이름의 끝에 德·蒙이 있는 인물들은 다수가 말갈 출신일 것이다. 이들 관료와 귀족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높고 낮은 등급을 규정하는 품계가 있었는데, 등급에 따라 직권뿐만 아니라 대우도 달라 입는 옷의 색깔,笏, 장식 등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다. 발해에는 또 왕과 부왕 아래에 적어도 公·侯·伯·子·男 등 5개 작위의 등급이 있었다.⁷⁾

평민은 성이 없는 신분으로서 編戶 혹은 百姓⁸⁾이라고도 하며, 고구려인에

京지역에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하여 富를 축적한 원의계와는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다. 나아가 국인층이 왕권을 좌우할 정도의 세력이었다면 귀족층 중에서도 우성가문이 여기에 가장 근접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魏國忠·朱國忱, 〈渤海政治制度述略〉(《求是學刊》1981-3; 김정배·유재신 편, 《발해국사》(1), 정음사, 1988, 101쪽).

酒寄雅志, 앞의 글(임상선 편역, 앞의 책, 151쪽).

林相先, 〈渤海の遷都에 대한 考察〉(《清溪史學》5, 1988), 44~46쪽.

韓圭哲, 앞의 책, 106쪽.

7) 王承禮 저·宋基豪 역, 《발해의 역사》(翰林大 아시아文化研究所, 1987), 127쪽.

魏國忠·朱國忱, 앞의 글(김정배·유재신 편, 앞의 책, 107~109쪽).

8) 《類聚國史》에는 발해의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고구려인이 적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의 백성에 대해서는 平民으로 보는 경우(盧泰敦,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の 族源〉,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264쪽 및 최대길, 〈발해국에서 사용한 “百姓”이란 단어에 대하여〉, 《발해사연구》3, 연변대학 출판사, 1992, 279~288쪽)와 庶官(百官)의 칭호로 보는 견해(金毓黻, 앞의 책, 권 15, 職官考, 雜職 및 張博泉·程妮娜, 〈論渤海國의 社會性質〉, 《學習與探索》1982-5; 김정배·유재신 편, 앞의 책, 117쪽)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발해의 관리 중에 말갈인이 고구려인에 비해 다수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백성을 姓을 가진 在地首長層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大隅晃弘,

비하여 말갈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평민은 국가호적에 편입된 자들로서 농민이 위주이고 그 외에 상인과 수공업자 등이 있었다. 이들은 租와 徭役, 兵役 등을 담당하는 계층이었다.⁹⁾

한편 발해의 신분구조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것은 部曲과 奴婢이며, 이들도 평민과 마찬가지로 姓이 없었다. 이들은 중앙 귀족세력이나 지방 토착세력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특히 지방 토착세력인 首領層의 세력기반이기도 하였다.¹⁰⁾ 부곡은 원래 군대 편제의 호칭이었으나, 唐에 이르러 주인에게 예속된 家僕으로 되었고, 주인의 放免을 거쳐야 평민으로 될 수 있었다. 부곡의 신분은 평민보다 낮고 노비보다는 높았지만, 마음대로 주인을 떠나지 못하는 예속된 존재였던 점에서는 노비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곡은 아마 신라보다는 당의 그것과 같이 개인에게 예속된 천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¹⁾

노비는 아무런 인신자유와 재산이 없는 존재로서 착취와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는 계층이었으며,¹²⁾ 주인의 무덤에 순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발해사회에서 노비가 대부분 주인에게 예속된 小作農(佃戶)과 수공업자들이었다는 주장¹³⁾도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들 부곡과 노비는 경제적인 이유거나 혹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몰락하여 천민화하거나 혹은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부류였다고 해야겠다.¹⁴⁾

〈渤海の首領制—渤海國家と東アジア世界—〉, 《新濶史學》 17, 1984, 114쪽), 이것 역시 타당한 설명으로 보이지 않는다.

9) 그런데 발해 宣王 9년(826)에 축조된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의 開心寺에서 1980년대에 발견된 글쫂지에는 절을 만든 木手가 팽가와 석가라고 하여 수공업자 중에는 성이 있는 부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송기호, 〈開心寺出土 글쫂지〉(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81~482쪽 참조.

10) 宋基豪, 〈渤海의 「多人葬」에 대한 연구〉(《韓國史論》 11, 서울대, 1984), 81쪽.

11) 王承禮 著·宋基豪 譯, 앞의 책, 127쪽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古代篇(一潮閣, 1982), 354쪽.

12) 발해사회의 노비도 관노비와 사노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방학봉, 〈발해 대원외가 피살된 사회적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한 연구〉, 《발해사연구》, 정음사, 1989, 110쪽 및 張博泉·程妮娜, 앞의 글, 118쪽).

13) 孫秀仁·干志耿, 〈論渤海族의形成與歸向〉(《學習與探索》 1982-4 ; 김정배·유재신 편, 앞의 책), 126~139쪽.

14)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354~355쪽.

(2) 토인과 수령

한편 발해의 신분뿐 아니라 주민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존재인 土人과 首領에 대하여 일본의 《類聚國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발해국은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 넓이가 2천 리이고 州縣館驛이 없고 곳곳에 村里가 있는데 모두 말갈의 부락이다. 그 百姓은 말갈이 많고 土人이 적다. 모두 토인으로서 村長을 삼는데, 大村(촌장)은 都督이라 하고, 다음(촌장)은 刺史라 하고, 그 아래(촌장)는 백성들이 모두 首領이라 한다(《類聚國史》 권 193, 殊俗部, 渤海 上, 延曆 15년 4월 무자).

이에 의하면 발해의 백성은 말갈인과 토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토인은 곧 고구려인을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행정구획에 있어서의 상위직은 대부분 고구려인이 차지하고 있었다.¹⁵⁾ 그러나 고구려유민 전부가 집권층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문벌 및 건국사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일반 양민 또는 기술직에 속하는 층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¹⁶⁾ 또한 말갈족 중에서도 乞四比羽 무리를 비롯한 건국과정에 참여한 집단은 고구려유민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았을 것이다.¹⁷⁾

그런데 《유취국사》의 기록은 수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먼저 발해의 지방행정체계가 大村(도독)－次村(자사)－下村의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하촌 즉 차촌 아래의 촌의 長이 바로 首領이라는 견해가 있고,¹⁸⁾ 한편으로는 대촌－차촌의 2단계로 발해의 지방행정체계가 구성되어

15) 한편 土人에는 고구려인 집단뿐 아니라 營州 방면에서 東走한 말갈인 집단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순수 말갈에 비해 소수가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盧泰敦, 앞의 글, 263~269쪽). 그러나 말갈과 토인은 별개의 종족적 명칭이 아니고 단순히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韓圭哲, 〈渤海國의 住民構成問題〉, 《발해의 민족형성과 연구사》, 발해사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1993, 91쪽).

16) 李龍範, 《古代의 滿洲關係》(한국일보사, 1976), 136~137쪽.

17) 발해의 건국과정에 참여한 말갈집단으로는 걸사비우 집단뿐 아니라 營州로부터 東牟山에 발해가 건국되는 동안에 합류한 부류, 그리고 건국 직후에는 속말수 지역의 속말말갈이 대표적 집단이었다(林相先, 〈渤海 建國 參與集團의 研究〉, 《國史館論叢》 42, 國史編纂委員會, 1993, 136~145쪽).

18) 李龍範, 〈渤海王國의 形成과 高句麗遺族(上)·(下)〉(《東國大學校 論文集》 10·

있었고 이들 대촌과 차촌의 백성들이 도독, 刺史를 수령으로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⁹⁾ 그러나 수령은 이 기록 외에도 발해의 대외사절단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 때의 수령은 자사·縣丞과 별개의 존재로서 위계도 훨씬 낮은 존재였다. 또한 발해에 앞선 고구려의 지방통치조직이 大城—城—小城의 3단계로 구분되고, 대성과 성에는 중앙에서 褥薩과 處閭近支가 임명되고, 소성의 可邏達에 발해의 수령이 비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의 주장 가운데 자사 아래 단계의 촌장이 수령이라는 해석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발해는 지방의 유력부락에는 도독 혹은 자사를 파견하여 주변의 부락을 통할시키고, 그 기초가 되는 아래 단계의 촌락에는 수령으로 불리는 토착부락장에게 자치를 맡기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유취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촌장은 모두 고구려인이며, 자사 아래 단계의 촌장이 수령이므로 도독과 자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수령층 역시 고구려인이 임명되었음이 분명하다.²⁰⁾

수령은 국가에 대하여 관할지역 농업 생산물의租나 특산물의 공납, 築城·造陵 등에 필요한 力役의 동원을 담당하였고, 지역주민을 근간으로 한 군대조직의 지휘관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큰 세력을 가진 수령은 대외사절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발해에서는 고구려인 마을뿐만 아니라 말갈부락에도 토인 즉 고구려인을 촌장으로 임명하는 직접지배형태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11, 1972·1973; 《中世東北亞細亞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6, 21쪽).

金鍾圓, 앞의 글, 218쪽

최태길, 앞의 글, 286~287쪽.

19) 朴時亨, 〈발해사연구를 위하여〉(《역사과학》 1962-1).

鈴木靖民, 〈渤海の首領に關する豫備的考察〉(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 編, 《朝鮮歴史論集》 上, 1979;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韓圭哲, 앞의 글, 91쪽.

20) 《類聚國史》의 “處處有村里 皆靺鞨部落”이라는 기록에 얽매어 부락장도 모두 말갈인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으나(河上洋, 〈渤海の地方統治體制——の試論として——〉 《東洋史研究》 42-2, 1983; 임상선 편역, 앞의 책, 114쪽, 鈴木靖民, 위의 책, 457쪽 및 鈴木靖民, 앞의 글; 임상선 편역, 앞의 책, 127쪽), 이어지는 “其百姓者 靺鞨多土人少”의 ‘其’는 바로 앞의 ‘말갈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곳곳에 있는 촌리는 대부분 말갈부락이며, 그 말갈부락의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는 의미가 된다(金鍾圓, 앞의 글, 217쪽). 즉 ‘말갈부락’에는 말갈인만이 아니라 소수의 토인(고구려인)도 거주하고 있었다.

(3) 사회생활

발해의 혼인풍습으로 《金史》에 보이는 搶婚은 발해인 가운데서도 말갈족의 혼인풍습으로서 일종의 약탈혼이라고 할 수 있다.²²⁾ 한편 발해 지배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계 주민의 혼인에 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으나 이전의 옛 고구려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발해의 가족은 일부일처제가 기본이었다. 그것은 발해인들의 무덤 발굴에서도 확인되며, 문헌상으로도 《松漠紀聞》에 잘 나타나 있다.

부인은 모두 사납고 妬忌하였다. 大氏와 다른 姓이 결합하여 10자매가 되었는데 번갈아 그 남편을 살피고 則室을 허용하지 않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것을 들으면 음모를 꾸며 毒으로 총애하는 여인을 죽이려 하였다. 한 남편이 잘못을 범하였으나 부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나머지 9인이 함께 모여 꾸짖었다. 질투와 시기로 서로 다툼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거란, 여진 등 여러 나라에는 모두 女倡이 있고, 그 나라의 良人들이 모두 小婦·侍婢를 거느렸으나 오직 발해만이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洪皓, 《松漠紀聞》 권 上, 渤海國)²⁴⁾.

또한 발해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은 胄子監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21) 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大丘史學》 19, 1981), 15쪽.

또한 수령을 통한 촌락지배는 신라가 村主를 통하여 촌락을 지배해 나가던 방식과도 유사한 점을 찾을 수가 있다(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354쪽).

22) 《金史》 권 7, 本紀 7, 世宗 大定 17년.

창혼의 풍속이 모계씨족사회에서 부계씨족사회로 향하던 과도기에 남아 있던 풍속이라는 지적을 보더라도 이것이 고구려인보다는 말갈족에 가까운 혼인형태였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宋德胤, 〈渤海民俗論〉, 《社會科學戰線》 1985-1; 崔茂藏 역, 《渤海的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1988, 290~292쪽).

23) 《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傳에는 “혼인에는 폐백을 쓰지 않고, 받은 자는 수치로 여긴다”고 하였고, 또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高麗傳에도 “혼인은 남자가 서로 좋아하면 바로 행하고, 남자의 집에서 돼지와 술을 보낼 뿐 재물로 맞는 禮가 없다. 혹 재물을 받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24) 한편 왕족인 대씨와 자매를 맺은 ‘다른 姓’은 귀족일 것이며, 왕족과 귀족들이 첩을 두지 않은 것은 역사발전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므로 ‘대씨’는 ‘大氏’의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최태길, 〈“송막기문”의 발해무첩설을 논박함〉, 《발해사연구》 4, 연변대학출판사, 1993, 182~191쪽).

받았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女師”라는 여성 교사의 개인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발해의 儒家思想에 대한 이해의 폭은 당시 중국의 학문 수준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발해의 법률은 발해 멸망 뒤 거란이 그 유민들을 발해법이 아닌 漢法을 적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나라와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즉 738년 당에서 《三國志》·《晉書》·《三十六國春秋》와 함께 《唐禮》를 베껴왔는데, 이 당례는 바로 《大唐開元禮》로서 당 현종 때 蕭嵩 등이 현종의 명을 받아 만든 것이었다. 《대당개원례》는 황제를 중심으로 群臣 百僚와, 아래로는 지방관원에 이르는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무릇 제사·儀典·冠婚·喪葬 등의 의식과 함께, 외국에 대한 조공 수속 및 외교 의례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大玄錫초에는 “자주 학생을 보내어 京師의 太學에 나아가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혔다”는 《新唐書》 발해전의 내용으로 미루어 율령격식의 수입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발해는 옛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말을 타며 활쏘는 것을 좋아하여 수렵활동이 활발하였다. 발해에는 오늘날의 하키와 비슷한 打球의 습속이 있어 일본에 간 발해 사신들이 일본 궁정에서 타구를 하였다는 기록이 일본에 전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폴로와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격구라는 놀이도 성행하였는데, 이 격구는 《遼史》 蕭孝忠傳에 의하면 발해인들이 무예를 연마하는 일환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渤海樂은 8세기초 일본과 교류가 시작된 이후 渤海樂師와 樂生들에 의해서 일본의 궁중에 渤海舞와 함께 전해졌고, 일본은 內雄을 발해에 파견하여 “音聲” 즉 발해악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 뒤 발해악은 일본 궁정 음악의 하나가 되어 항상 연주되었다고 한다. 또한 발해의 왕립음악기관인 太常寺에

25) 방학봉, 〈정효공주묘지에 반영된 유가사상 연구〉(《발해문화연구》, 이론과실천, 1991), 91~108쪽.

26) 발해의 법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島田正郎, 〈新出土史料による渤海國史の新事實〉(《遼朝史研究》, 創文社, 1979), 472~475쪽

王承禮 著・宋基豪 譯, 앞의 책, 78~79쪽

魏國忠・朱國忱, 앞의 글, 106~107쪽.

서 연주된 악기들은 대부분 고구려의 악기들을 계승한 것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渤海琴으로 알려진 玄琴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해 멸망 이후에도 발해 무용수들의 후예들인 渤海敎坊은 금나라에서 발해무를 계승하였다.²⁷⁾ 이 밖에 발해인들이 즐겼던 놀이로는 오늘날의 우리 나라 풍속에 전하는 강강수월래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踏鎚가 있었다. 《契丹國志》에는 발해의 풍속에는 歲時마다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노는데, 먼저 노래와 춤을 잘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앞에 내세우고 그 뒤를 士女들이 따르면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를 부르며 빙빙 돌고 구르고 하는데 이를 답추라 한다고 하였다.

발해 관리들의 복식에 관해서는 《신당서》 발해전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品으로써 차등을 두는데 3秩 이상의 服色은 紫色으로 하고, 牙笏과 金魚를 장식하였다. 5秩 이상은 緋色 옷에 아홉과 銀魚를 장식하였다. 6질과 7질은 옅은 비색, 8질은 녹색옷에 모두 木笏을 사용하였다(《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이러한 발해의 복식제도는 唐制를 모방한 것으로서 등급에 따라 관복의 색깔과 홀, 패식에 엄격한 구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효공주묘의 벽화에는 발해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벽화속의 인물은 뺨이 둥글고 입술은 붉으며 얼굴이 크고 살이 찼다. 머리에는 幘頭나 수건을 쓰고, 靑·紅·紫·白·赭色의 목 둘레가 둥근 袍에 가죽 허리띠를 차고, 발에는 가죽신이나 삼으로 엮은 신을 신었다. 이러한 모습은 남자로 분장한 여자들의 묘사에 가까우며, 이것은 唐 則天武后의 男裝 풍습이 발해에 전래된 영향으로 보인다.²⁸⁾

발해인들의 주거도 다양각색이었다. 지배층은 상경성의 궁전에서 보듯이 화려하게 유약을 바른 넓직한 건물에서 살았으며, 왕의 숙소로 쓰였던 곳에 서는 온돌시설도 발견되었다.²⁹⁾ 온돌이 ‘ㄱ’자형으로 방의 두 개 벽면을 따

27) 宋芳松, 〈渤海樂 小考〉(《東洋學》 14, 檀國大, 1984) 참조.

28) 王承禮 著·宋基豪 譯, 앞의 책, 249쪽.

29) 상경성 이외에 온돌이 발견된 발해유지로는 흑룡강성 東寧縣 團結遺址, 러시아 연해주 의 콘스탄티노프카와 아난예프스카야 유적, 북한의 함남 신포시 오메리유지 등이 있다(韓圭哲, 앞의 글, 87~88쪽).

라서 설치된 것으로 보아 잠자리에 들 때만 온돌을 이용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입식생활을 한 것 같다. 일반인의 경우는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발견된 주거지를 통하여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은 지상에 설치된 가옥과 반지하식 가옥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사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움집 형태이다. 대체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그 면적이 지상 가옥의 경우 전기에는 12~28㎡이다가, 후기에 이르면 50㎡에 이르고, 반지하식 가옥은 조금 작았다. 전기에는 화덕으로 난방을 하다가 후기부터 1~3개의 고래가 달린 부분적인 온돌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³⁰⁾

발해인들은 왕이나 왕족, 귀족들은 산에 陵墓를 쓰거나 陵園에 매장하였으나, 일반 평민들은 공동묘지를 이용하였다. 발해 무덤들은 대체로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³¹⁾ 土坑封土墓는 火葬을 하고 목관을 사용하였다. 石壙封土墓는 안에 목관을 두고 위에 봉토를 하였으며, 石棺封土墓는 큰 돌을 천장에 덮었다. 石室封土墓는 봉토가 높고, 천정은 抹角天井으로 된 것도 있고, 큰 돌로 평평하게 덮은 것도 있다. 磚室石頂封土墓는 정효공주무덤과 같이 천정은 판석으로 덮고 그 위에 塔式 건축물이 있기도 하다.³²⁾ 발해 무덤의 형식은 초기에는 이 지역 石棺墓의 전통과 고구려 석실봉토묘의 형식을 계승하였지만,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당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매장습속상의 목관장, 화장, 합장,³³⁾ 2차장은 발해 민족의 복잡한 구성, 계급과 지위의 차이 및 매장습속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발해와 관련된 전설로는 “남자는 智謀가 뛰어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용맹스러워 발해인 3명이면 호랑이 한마리를 당한다”는 《송막기문》의 기록

30) 송기호, 《발해를 찾아서》(술, 1993), 63~64쪽 참조.

31) 李殿福·孫玉良, 《渤海國》(文物出版社, 1987), 124~130쪽.

32) 무덤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왕실귀족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식이었다고 한다(정영진, 〈발해무덤연구〉, 《발해사연구》 1, 연변대학출판사, 1990, 116쪽).

33) 발해 무덤의 주요 특징인 多人葬은 혈친관계가 있는 가족뿐 아니라 주인에게 예속된 노비들도 함께 매장한 결과이다. 발해의 다인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송기호, 앞의 글(1984).

엄장록·박용연, 〈북대발해무덤연구〉(《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1991).

연변박물관,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1992).

과 새나 짐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薩多羅에 대한 것이 있으며,³⁴⁾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발해인의 총명함과 용감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2) 경제구조

(1) 경제생활

발해의 사회 발전수준과 더불어 경제적 발전도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서부와 남부는 주로 농업지구였고, 동부의 핵심지대는 농업과 어업, 수렵, 목축이 서로 결합된 지구였다. 북부의 거주민들은 주로 어업, 수렵 및 목축에 종사하였고, 농업도 일부지역에서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었다.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중요한 특산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太白山의 토끼, 南海府의 昆布, 柵城府의 玃, 扶餘府의 사슴, 鄭頡府의 돼지, 率賓府의 말, 顯州의 布, 沃州의 綿, 龍州의 紬, 位城의 鐵, 盧城의 쌀, 湄沱湖의 붕어가 있고, 과일에는 丸都의 오얏, 樂游의 배가 있다(《新唐書》 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이러한 특산물은 半農半獵의 산업형태에 있던 주민들에게 부과된 부담으로서 국가재정에 충당되는 외에 대외무역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는 仁部 이외에 司藏寺, 大農寺 등이 있었다. 또한 이것을 보면 발해의 농업·수공업·어업·수렵업·목축업이 모두 상당히 발전되었고, 경제 각 분야가 비교적 고르게 갖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지역은 주로 서부의 松嫩平原·松花江 유역의 부여부·막힐부·장령부·洮州, 서남부의 압록부, 남부의 남해부, 그리고 牧丹江·渾春河·목릉하 유역의 발해 핵심지구인 上京·中京·東京 및 솔빈부에 분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후가 찬 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벼농사보다는 밭작물인 보리·

34) 洪皓, 《松漠紀聞》 권 上, 渤海國.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권 11, 土庶列傳.

이외에도 오늘날의 경박호 주변에 발해 홍라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다(송덕윤 저·최태길 역, 〈발해의 속담과 전설〉,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1992).

조·콩 등이 많이 재배되었다. 철기가 농업생산에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敦化 敖東城과 寧安 상경 용천부 유적지에서 쇠로 만든 보습·낫·가래 등의 농기구가 출토되었다. 고구려의 옛 땅이었던 지역에서는 일찍이 3세기에 이미 牛耕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므로 발해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³⁵⁾ 한편 상경성 일대에서 출토된 세발달린 술은 높이가 20cm, 아가리 직경이 17cm로 발해인들이 음식물을 끓일 때 철기를 널리 이용하였다는 것을 전해준다.³⁶⁾

농작물 중에서 평원과 산간 및 半山間의 건조한 지역에는 주로 가뭄에 강한 조·보리·기장·콩을 심었다. 柵城에는 大豆로 만든 된장이 유명하였다. 盧城은 쌀의 산지로서 현재도 유명하다. 벼는 水稻와 旱稻의 두 종류가 있으며 재래의 만주 稻作은 한도의 경우가 많았다. 발해의 벼산지는 기후 때문에 노성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국한되었을 것이다.³⁷⁾ 이 밖에 발해에서 유명한 과일로는 丸都의 오얏과 樂游의 배가 있었다.³⁸⁾

발해의 수공업은 국가 수요를 위한 관청수공업과 함께 전업적 수공업자와 농민들의 가내 수공업으로 이루어진 민간수공업도 존재하였다. 6부 중에 수공업과 관련된 부서는 智部和 信部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부는 무관들의 인사행정과 지도·말·수레 및 무기들을 취급하였고, 신부는 산림·하천과 호수·수산자원과 둔전·토목축사업을 담당하였다. 한편 지방의 중요 군관구들에서도 무기를 자체 생산·수리하기 위한 무기수공업장을 조직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부는 고려시기의 工曹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말기에 工部로 불렸다. 이 밖에 국왕의 의복, 수레와 관련된 일을 취급하는 관청으로서 殿中寺도 있었다.³⁹⁾

현주는 유명한 마포 생산지였다. 이곳은 옛 옥저의 땅으로서 貂布는 《三

35)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29~130쪽 참조.

36) 부경만, 관금천, 왕립안, 황립계 저·방학봉 역, 〈발해국의 서울 상경성의 문화유산에 대하여〉(《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1992), 240쪽.

37) 李龍範, 앞의 책(1976), 144쪽.

38) 낙유는 발해의 지명으로서 기록에 보이지 않으므로 樂浪의 오기가 아닐까 생각된다(駒井和愛, 〈渤海の五京とその名産〉, 《史觀》 81, 1945; 《中國都城·渤海研究》, 雄山閣, 1977, 207쪽).

39)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69~81쪽 참조.

國志》東夷傳에도 옥저의 특산물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주에서 고급 細布가 발달한 것은 이곳이 일시 발해 지배계급이 거주했던 수도였던 시기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⁰⁾ 발해가 後唐에 조공품으로 보낸 세포, 또는 말갈족이 거란과 교역한 細白布는 모두 이 ‘현주의 포’와 같은 것일 것이다.⁴¹⁾ 현재 돈화 옥정산고분군, 화룡 북대고분군, 그리고 용두산고분군에서 발해시대의 마포가 발견되었는데, 이 천은 길쌈이 엄밀하고 고르며 아직도 광택이 나는 은백색을 띠고 있었다.⁴²⁾

발해의 남부와 동부에서는 멧누에를 길러 고치로부터 실을 뽑아 솜(綿)을 만들어 각종 綢와 紬를 짰다. 그 중에서도 남경 남해부의 沃州는 유명한 풀솜 생산지였다. 풀솜은 뽕나무에 나는 멧누에의 고치에서 실이 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주 비단이 생산되는 모든 곳에서는 모두 이 풀솜이 생산되었지만 옥주의 풀솜이 가장 질이 좋았던 것 같다.⁴³⁾ 또한 상경 용천부의 龍州는 솜실로 짠 주가 유명하였다. 《後漢書》동이전에 濊俗에 綿布를 만든다고 한 면포는 바로 紬이다. 종래 발해 때에 흑수말갈이 당에 魚牙紬, 朝霞紬를 바쳤다는 기록을 근거로 발해 북부에서 주가 생산되었을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이것은 신라의 명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용주에서 주가 생산된 것은 이곳에 모인 발해의 지배계급의 강한 수요에 연유한 것이지만, 주원료인 綿이 옥주에서의 생산량으로는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도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원료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함에 따라 품종이나 수량에 큰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⁴⁾ 발해가 생산하는 絲織品은 수량이나 채색 종류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관청에서 만들어져 왕실 귀족에게 제공되

40) 日野開三郎, 〈國際交流史上より見た滿鮮の絹織物〉(《朝鮮學報》48・63・82, 1968・1972・1977; 《日野開三郎 東洋史論集》9 北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上), 三一書房, 1984, 374쪽).

41) 李龍範, 앞의 책, 143쪽.

42) 박윤무, 〈용두산발해구역내의 룡호무덤떼에 대한 고찰과 발굴〉(《발해사연구》4, 연변대학출판사, 1993), 10~11쪽.

43) 옥주의 ‘綿’은 목화솜이 아니다(방학봉, 〈발해 ‘현주의 천’과 ‘옥주의 면’에 대한 연구〉, 《발해사 연구》, 정음사, 1989, 44~46쪽).

44) 日野開三郎, 앞의 글, 370~375쪽.

었다. 즉 발해가 옥주의 면을 원료로 하는 관영 직조공장을 두고 있었던 것은 발해 멸망 후 요나라에서 발해인이 궁정에 직물을 공급하는 綾錦院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을⁴⁵⁾ 통해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현재 정효공주무덤의 벽화 중에 侍者는 당시의 아름다운 명주(縐) 옷을 몸에 걸치고 있다.

발해의 벽돌과 기와 및 도자기는 대체로 早期와 晩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기의 그것은 바탕흙이 거칠고 예술장식이 적은데, 돈화 六頂山의 것이 대표적이다. 만기에는 상경 용천부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이며, 바탕흙이 견실하고 고우며 안료의 색은 순청색이 많다.⁴⁶⁾ 발해의 도자기 생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약을 바르는 기술이 널리 보급된 사실과 함께 사기그릇이 새로이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약바른 도기로서는 세 가지 유약을 배합하여 구어낸 이른바 ‘渤海三彩’가 유명하고,⁴⁷⁾ 사기그릇 가운데 831년 당나라에 수출된 순자색 자배기는 새털같이 가벼워 뛰어난 발해 도자기술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⁴⁸⁾ 또한 “咸和”라는 글씨가 쓰인 絞釉葫蘆瓶은 병의 높이가 24.5cm로 흰 바탕에 흐르는 구름이 에워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⁴⁹⁾ 한편 궁전이나 절의 건축에 쓰인 기와는 별도의 부서 또는 부속이나 개인에 의해 제조되어 공급되었으며,⁵⁰⁾ 오늘날의 연해주지역에서는 발

45) 《遼史》 권 37, 志 7, 地理 1, 祖州.

遼의 능금원에 소속되어 있는 발해인이 발해의 龍州에 있던 관영공장 織紬職人의 후예라는 주장도 있다(日野開三郎, 앞의 글, 383쪽).

46)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32쪽.

47) 1988년 7월 화룡현 북대 발해묘지에서 출토된 삼채병과 종지는 중국에서도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의 삼채기물로서 국보로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이 가운데 삼채종지는 아가리 지름이 11.6cm, 밑굽 지름은 6.1cm이고, 그릇 두께는 0.5cm, 그릇 높이는 5.4cm인데, 그릇 안팎에 초록색·연한 황색·미황색·흰색 등의 유약을 발랐으며 물결무늬·구름무늬, 혹은 갈마든 풀잎무늬 등이 나타나며 변화가 다양하고 아름답다고 한다(정영진, 〈1988년도에 발굴한 북대발해무덤 및 3채그릇〉, 《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1991, 1~10쪽).

48) 홍희유, 앞의 책, 78~79쪽.

49) 李汝寬 著·井垣春雄 譯, 《中國青花瓷器的源流》(雄山閣, 198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1992), 484~485쪽.

50) 중경 현덕부지인 서고성자와 동경 용원부지인 반남성자에서 동일한 인장을 찍은 기와가 출토되는 것도 일정한 곳에 위치한 製瓦場에서 수요에 응한 결과로 생각된다(三上次男, 〈渤海の押字瓦とその歴史的 성격〉, 《和田博士古稀記念 東洋史論叢》, 講談社, 1961; 임상선 편역, 앞의 책, 168~169쪽).

해와 신라의 문화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봉황연화무늬 기와도 출토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⁵¹⁾

발해에서 생산된 광물로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철·동·금·은 등이 있다. 발해인들은 철을 제련하는데 능숙하였다. 돈화·화룡·영안·동녕 등의 발해 유적지와 무덤에서 많은 수량의 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生鐵로 주조한 것이 있는가 하면, 熟鐵로 단조한 것도 있다. 중경 현덕부 鐵州 관할의 位城이 유명한 철 생산지였고,⁵²⁾ 이 밖에 《요사》食貨志에는 철리부의 廣州도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遼는 발해를 멸망시킨 뒤 발해의 冶鐵 匠人들을 거란 영토내로 대거 이주시켰다. 한편 영안 상경 유적지, 돈화 육정산, 동녕 대성자, 집안 등지에서는 대량의 구리제품이 출토되었다. 구리는 생활용구와 각종의 장식품을 만드는데 비교적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말탄사람 모형은 높이가 5.2cm에 지나지 않지만 말과 장식 및 사람 등을 섬세한 수법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발해인의 높은 주조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³⁾ 814년 발해 사신 高禮進이 당에 금불상과 은불상 각 1개씩을 가져간 것이나 836년 발해가 熟銅을 登州까지 운반하여 唐과 무역한 사실을 통하여 발해의 구리 생산과 구리 제련기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⁴⁾ 또한 화룡 북대지, 영안 상경 유적지, 돈화 육정산 등의 지역에서 출토된 금으로 만든 허리띠·장식물·팔찌·귀걸이 및 대량의 도금한 물건들, 은으로 만든 비녀 등에서도 발해의 금·은 생산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⁵⁵⁾

목축과 어업, 수렵업도 발해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동부와 북부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돼지는 고기는 식용으로, 가죽은 옷

51) 문명대, <코르사코프카 불교사원지 발굴>(《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대륙연구소, 1994), 73~102쪽.

52) 중경 현덕부가 위치한 두만강 남쪽은 조선시대에도 沙鐵의 생산지로 《世宗實錄地理志》나 《東國輿地勝覽》에 적혀 있을 뿐 아니라 江北은 지금도 天寶山 같은 鐵源을 가지고 있다(李龍範, 앞의 책, 144~145쪽).

53) 홍희유, 앞의 책, 77쪽.

54) 《冊府元龜》권 972, 外臣部, 朝貢 5.

《冊府元龜》권 999, 外臣部, 互市.

55)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37~138쪽.

을 해입는데 이용되었는데 막힐부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유명하였다. 말은 발해에서 사육된 가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사육되었고, 그 중에서도 솔빈부의 말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730년 발해는 당에 조공하면서 말 30필을 바쳤고, 그 후 오래지 않아 다시 말 30필을 바쳤다. 淄靑節度使 李正己는 山東을 할거하면서 매년 발해와 말을 교역하여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발해쪽에서도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한편 오늘날의 경박호에서 나는 붕어는 특산품으로 이름높았으며, 《송막기문》에는 붉은 색을 띤 큰 바다게인 螃蟹도 아주 맛있는 식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⁵⁶⁾

그리고 동부와 북부의 반산간지역과 산간지역 및 강과 호숫가의 말갈인들은 주로 어업이나 수렵에 종사하였다. 수렵에서 주로 잡은 날짐승들로는 매·꿩이 있었고, 짐승들로는 담비·사슴·호랑이·표범·곰·말곰·멧돼지·銀鼠·靑鼠·흰토끼·사향노루 등이 있었다. 태백산의 특산물이라는 ‘토’는 종래 일반적으로 ‘흰토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약재로 중요하게 쓰이는 茯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⁵⁷⁾ 부여의 사슴도 널리 알려졌으며, 녹용과 사향은 진귀한 약재로 이용되었다.

현재 발해에서의 화폐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으나⁵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화폐와 물물교환이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발해에서 사용한 화폐로는 당이나 일본의 것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발

56) 魏國忠·朱國忱, 〈論渤海經濟〉(《學習與探索》1982-2; 김정배·유재신 편, 《발해국사》(1), 정음사, 1988, 18~19쪽).

57) 조철부는 《신당서》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傳에 발해 산물로서 기록된 14가지 산물들이 일정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태백산의 토’가 토끼라면 웅당 부여의 사슴앞에 놓여야 하나 정작 식물과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식물이 옳으며, 그 중에서도 ‘태백산의 토’는 아마 복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조철부 저·김영국 역, 〈발해국 력사의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해사연구》4, 연변대학출판사, 1993, 192~206쪽).

58) 발해의 화폐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왕림안 저·리춘호 역, 〈발해국의 화폐문제에 대하여〉(《발해사연구》2, 연변대학출판사, 1991), 302~309쪽.

왕림안 저·최태길 역, 〈발해국 화폐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발해사연구》4, 연변대학출판사, 1993), 73~98쪽.

해 독자의 화폐가 있어 자체적으로 주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되며, 변방의 낙후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물교환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한편 발해가 생산이나 교환, 또는 건축 등에 사용한 도량형의 표준과 進位制는 대체로 고구려의 것과 유사하였다. 상경 용천부지에 있는 石燈의 크기를 관찰한 결과 발해자 1자는 35cm 내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0진법에 의해 운영되고 정연한 단위자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에서도 고구려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⁶⁰⁾ 특히 상경성 부근에서는 쇠로 만든 저울돌이 발견되어 당시에 저울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¹⁾

(2) 대외무역

발해는 당, 일본, 그리고 신라와 무역을 하였는데, 이런 무역은 왕실, 귀족 간의 官方貿易이 중심이었고, 간혹 사신과 민간인에 의해 이루어진 일정 범위내의 민간무역도 있었다. 발해는 국내의 불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대외무역의 발전에 힘을 쏟아, 이 분야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극성을 띠어 매우 융성하였다.⁶²⁾

《신당서》발해전에는 발해의 대외교통로로 日本道・新羅道・朝貢道・營州道 그리고 契丹道가 언급되어 있다. 일본도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용원부를 지나 동남쪽의 오늘날 Pos'yet灣의 Kraskin에 도달하여 일본으로 향하는 길이며, 신라도는 동경 용원부를 출발하여 남해부를 경유하여 신라의 井泉郡에 이르는 길이었다. 조공도와 영주도는 모두 중국으로 가는 통로로서 전자는 서경 압록부를 지나 해로로 당에 이르고, 후자는 육로로

59) 李殿福・孫玉良, 앞의 책, 97~99쪽.

60) 장상렬, 〈발해의 건축〉(역사편집부 편, 《발해사연구문집》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266~283쪽 참조.

이와 달리 발해의 도량형은 당의 제도와 같아서 大尺은 29.5cm, 小尺은 24.5784cm이고 1步는 5尺, 1리는 360보로서 오늘날의 531m에 해당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방학봉, 〈발해의 도량형에 대하여〉, 《발해사연구》2, 연변대학출판사, 1991, 164~168쪽).

61) 저울돌은 높이 7cm의 반구형으로서 밑부분은 평탄하고 지름은 6.5cm이며, 무게는 2근이고 꼭대기에는 높이 0.8cm의 가락지가 있다(부경만 등 저·방학봉 역, 앞의 글, 241쪽).

62) 日野開三郎, 앞의 글, 376쪽.

長嶺府를 통과하여 당의 동북지방 거점인 영주에 이르는 길이며, 거란도는 부여부를 지난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발해와 교류가 빈번했던 나라는 당과 일본 그리고 신라였다.

발해와 당과의 교역은 713년 대조영이 아들을 당에 보내어 市場에서 교역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당 현종의 허락을 얻으면서 시작되었다. 발해가 중국으로 수출한 상품은 담비·호랑이·표범·곰·말곰·토끼·쥐 등의 가죽, 인삼·우황·白附子·사향·꿀 등의 약재, 고래·마른 문어·매·말·양·布·綢·紬·구리 등이었다. 당에서 발해에 들여온 물품에는 帛·錦·綿·絹과 금·은으로 만든 그릇 등이 있었다.⁶³⁾ 특히 발해의 名馬는 登州와 靑州에서 많이 거래되었고, 836년에는 발해가 구리를 운반하여 등주에서 판 일도 있었다.⁶⁴⁾

일본과의 경제교류는 주로 왕실간의 公貿易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민간 무역도 일부 있었다. 양국 왕실간에 의례적인 예물교환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무역 이외에, 사신이 개인의 명의로 선물을 주고받는 형식의 무역, 사신단이 使館에서 일본측 관리들과 개인 상인을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사무역 등이 있었다.⁶⁵⁾ 양국간에는 발해의 상인들이 직접 일본에 가서 진행한 사무역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續日本紀》에는 天平 18년(746) 발해인과 鐵利國人 1,100명이 일본의 出羽國에 상륙하여 교역활동을 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이 발해에 수출한 것에는 絹·綿·紬·綾·錦·布·縵羅·白羅·실·황금·수은·석유·水精念珠·檳榔扇이 있었으며, 발해가 일본에 보낸 것에는 담비 가죽·호랑이 가죽·표범 가죽·인삼·꿀 등의 토산물⁶⁶⁾과 함께 당의 물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⁶⁷⁾

63)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39쪽 참조.

64) 당나라 登州府(지금의 산둥성 봉래현)의 성 남쪽에는 新羅館과 함께 渤海館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외교상의 왕래와 무역의 필요에 따라 발해 사신을 접대하고 무역업무를 처리하였다(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2, 開城 5년 3월 2일).

65) 박영해, 〈발해의 대외관계에 대하여〉(《역사과학논문집》 1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7), 216쪽.

66) 王承禮 저·宋基豪 역, 앞의 책, 140쪽 참조.

67) 예를 들면 바다거북의 껍데기인 대모로 만든 술잔이 있다(東野治之, 〈日唐間における渤海の中繼貿易〉, 《日本歴史》 438, 1984 ; 임상선 편역, 앞의 책, 273~274쪽).

한편 남쪽의 신라와도 견직물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제교류가 있었는데, 양국간의 교류로는 남경 남해부에서 신라의 동북경으로 들어가는 길이 주요 노선이었지만 민간상인들이 많이 이용한 것은 서경 압록부의 桓州에서 만포를 거쳐 신라의 서북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⁸⁾

〈林相先〉

68) 日野開三郎, 앞의 글, 376쪽.